보도시점 2024. 4. 1.(월) 배포 즉시

# 지자체와 공동으로 9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, 지방노동관서에 상담지원인프라를 마련했습니다.

## 1. 관련 기사

□ 4.1.(월) YTN, “갑질 당하면 어디에 호소?...늘어나는 이주노동자, 줄어드는 지원센터”

## 2. 설명내용

□ 정부는 지난해까지 민간단체 보조 방식으로 운영된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서비스를 개편하여, △상담은 지방고용노동관서 △한국어 등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 △지역 체류지원 서비스는 지자체의 ‘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’을 통해 제공 중이며 **기능별로 별도 예산을 편성***하였음

*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(36억, 중앙18억 + 지자체18억) 외 상담·교육예산 26억 별도 편성(지방고용노동관서·인력공단 운영인력 인건비 별도)

○ 이중 ‘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’은 외국인근로자에게 **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**하고자 **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문화·생활·정착을 지원**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신설된 것이며,

– 올해 선정된 9개 자치단체는 정부 지원기간(3년) 종료 후에도 **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해서 서비스**를 제공할 예정임

□ 또한, 외국인근로자가 **언어소통의 어려움 없이 수준 높은 상담**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
○ **2011년부터 전화상담에 특화된 ‘외국인력 상담센터’**를 통해 **16개 송출국 언어로 연중무휴**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,

○ 특히 올해에는 외국인력이 밀집된 지역의 **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국어 상담원 60여 명을 신규 배치**하여 △상담 후 **원스톱 행정서비스** 제공, △**행정데이터 기반의 상담** 등이 가능토록 상담 서비스도 **한층 고도화**하였음



| 담당 부서 | 국제협력관<br>외국인력담당관 | 책임자 | 과 장 | 오기환 (044-202-7157)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이동현 (044-202-7149) |

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